

## [별첨]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방향

### 1. 추진배경

□ 국내기업은 수익성,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향 ➡ “코리아 디스카운트”

○ 국내증시 PBR\*은 1.05배(코스피 0.95배, 코스닥 1.96배)로 선진국(3.10배)은 물론 신흥국(1.61배) 대비 낮은 수준

\* 당기순이익에 초점을 맞춘 PER(시가총액/당기순이익)과 달리, PBR(시가총액/자본)은 자본의 가치를 고려 ➡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비중이 큰 국내증시 평가에 적절

【 주요국 증시 PBR 비교('23년말 현행 PBR, 배, Bloomberg) 】

구 분	코스피	코스닥	한국 전체	대만	중국	인도	신흥 평균	미국	일본	영국	선진 평균
PBR	0.95	1.96	1.05	2.41	1.13	3.69	1.61	4.55	1.42	1.71	3.10

\* 국가별 PBR은 MSCI 국가지수 기준

➡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,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**상생의 장**이 될 수 있도록,

○ 자본시장을 둘러싼 문화·분위기 개선 노력 적극 추진

### 2. 추진방향 : “제도 · 투자자(국민) · 기업”의 삼위일체

◇ ①공정·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토대로, ②국내외 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를 촉진하고, ③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 강화

⇒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해 나가고,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하는 “**상생·기회의 장**”으로 자본시장 변화 유도

## 【자본시장 체질개선】

대상	추진방향	세부과제
인프라	① <b>공정·투명한</b> 시장질서 확립	<b>❶</b>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<b>❷</b> 불법 공매도 근절 <b>❸</b>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
투자자 (국민)	② <b>자본시장</b> <b>접근성</b> 제고	<b>❶</b> 외국인 ID 폐지,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 <b>❷</b> 금투세 폐지, ISA 확대 등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필요과제 지속 발굴·추진 <b>❸</b> ATS 등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 <b>❹</b> IR 강화 / <b>❺</b> 금융교육 지속·확대
기업	③ <b>주주가치 존중</b> 문화 확산	<b>❶</b> 일반주주 보호 강화* * 물적분할, 내부자거래, 자사주, 전환사채, 의무 공개매수, M&A 등 관련 제도개선 <b>❷</b> 배당절차 개선 <b>❸</b>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<b>❹</b>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

기업혁신·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

“상생과 기회의 자본시장”

### ① [인프라] **공정하고 투명한** 시장질서 확립

○ (경과) **❶**불공정거래와 **❷**불법공매도에 대한 대응 강화

- \* **❶** 적발·처벌 강화,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, 부당이득 산정기준 구체화 등
- ❷** 불법 공매도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('23.12월),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(90일 이상 대차시 보고의무 등), 공매도 금지('23.11.5~'24.6월말) 등

⇒ (계획) **❶**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**❷**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, **❸**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**민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** 확립

- \* **❶** 자본시장 거래 제한, 임원선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강화
- ❷** 쌍방향 주식리딩방 투자자문업에 포함,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('24.8월 시행)
- ❸**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, 공매도 거래조건(상환기간·담보비율) 형평성 제고 등

## ② [투자자]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

○ (경과) ①외국인 ID 폐지, ②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, ③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, ④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상향

- \* ① 외국인 ID 없이도, LEI(법인식별기호) 등을 식별수단으로 국내 자본시장 투자 허용
- ② 통합계좌로 투자 중인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주기를 「즉시(t+2일)→月1회」로 완화
- ③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의 결산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 공시 의무화
- ④ 개인투자자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종목별 「10→50억원」으로 상향

⇒ (계획) ①금투세 폐지, ISA 세제지원 등 세제개선 과제 지속 발굴, ②거래 시스템 다양화, ③IR 강화 등을 통해 국내증시 수요기반 확충

- \* ① [금투세] '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 / [ISA] 납입액·비과세한도 상향, 가입대상 확대
- ② ATS(대체거래소) 출범,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
- ③ 거래소·상장기업·정부 공동으로 국내외 투자자 대상 IR 강화

## ③ [기업]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

○ (경과) ①물적분할·내부자거래·자사주 및 ②배당절차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\* ① [물적분할] 물적분할후 쪼개기 상장시 공시·상장심사 강화,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[내부자거래] 내부자 대규모 거래 사전공시 / [자사주] 인적분할시 신주배정(자사주 마법) 금지
- ② 배당권리자 확정일(배당기준일) 전 배당금 규모가 확정되도록 하여, “깜깜이 배당” 관행 개선

⇒ (계획) 추가적으로 ①회사법 제도의 근간인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하고,

○ 한국기업 특성을 감안한 ②기업 밸류업 프로그램\*을 마련·운용하여,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·실행하는 분위기 조성

- \* 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등 이사의 책임 강화, 전자주총 도입 등 주총 내실화
- ② 업종별 투자지표(PBR·ROE 등) 비교공시,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재(기업 지배구조보고서 등),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수·ETF 개발 등

➡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등은 그간의 제도개선과 향후 추진 과제들이 자본시장 체질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평가

➡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토대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단계 더 레벨업되려면, 투자자·기업의 지속적 참여·역할이 필요한 시점